

놀다가 태산을 발견하는 즐.거.움, 궁.리.

“궁리라는 이름은 과학세대 김동광 대표가 지어준 것입니다. 주자의 ‘학문을 하는데 궁리만한 것 없고, 궁리하는 데 독서만한 것 없다’에서 따온 말이지요.”



궁리 김현숙 편집장은 자신의 직장을 ‘집과 회사 그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소개한다. 우선 회사건물 자체가 관악산이 내다보이는 봉천동 연립주택단지에서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이갑수 대표(44)의 운영 스타일 역시 직원들의 자율, 즉 ‘천성’을 존중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6명의 식구들은 이 대표가 멀리 관악산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긴 사이에 집에서처럼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근무하다 퇴근한다.

“그 흔한 회의도 기획서도 없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불러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방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선 저 자체가 어떤 형식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이러한 이 대표의 스타일이 그가 출판계와 인연을 맺게 한 고리가 되었다. 물론 지금이야 사이언스북스 대표를 거쳐 궁리출판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기는 했지만 서울대 식물학과 출신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그는 재학 시절부터 자연과학과 담을 쌓고 지냈다. 졸업 후에도 오퍼상이니 한-일합작회사 설립이니 전공과는 상관없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세상과 불화의 연속이었다. 그 불화는 스물아홉이라는 나이에 시를 쓰게 했고, 민음사 ‘오늘의 작가상’ 수상을 계기로 박맹호 사장과의 만남으로까지 이어졌다.

“박맹호 사장이 대우학술총서를 내면서 눈높이를 낮춰 좀더 대중들에 다가설 수 있는 과학도서를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출판기획쪽에 자연과학 전공자들이 흔치 않았는데 우연히 제가 옆에 있었던 거죠. 뜻밖에도 뒤늦게 시작한 출판일이 제 성격에 맞더군요.”

민음사에서 8년 동안 편집자와 자회사 사이언스북스의 대표를 거친 이 사장은 ‘이젠 스스로 밥을 지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궁리라는 이름으로 독립했다.

첫 번째 책은 1999년 5월에 나온 《바이너리코드》 1.2권이였다. 이 대표로서는 쏟아 부은 열정만큼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첫사랑과 같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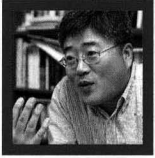
“단지일보에 연재되었던 SF소설이었습니다. 연세대 화학과 출신의 젊은 작가 노성래 씨가 썼는데 네티즌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SF소설이 있었다니!’ 하며 감탄할 정도였죠. 그런데 막상 책을 내고 보니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5,000질을 찍었는데 3년 동안 팔아야 했죠. 물론 다 돈을 받고 판 건 아니구요.”

이후 유전과 염색체에 대해 담고 있는 《파리, 생쥐 그리고 인간》(프랑스어 자콥, 1999)이 세 번째로 나오면서 독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궁리는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김훈기, 2000), 《나는 달린다》(요시카 피셔, 2000),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김열규, 2001) 《과학의 즐거움》(알베르 자카르, 2001)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이은희, 2002) 등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주목받는 책을 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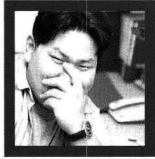
이 외에도 이 대표가 특히 애정을 갖고 있는 책은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나》(루이스 윌퍼슨, 2001)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로베르 주르탱, 2002) 등이다. 이들 책은 과학이면 과학, 인문이면 인문 구분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분야를 오가는 책으로 평균 이상의 고급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궁리라는 이름은 과학세대 김동광 대표가 지어준 것입니다. 주자의 ‘학문을 하는데 궁리만한 것 없고, 궁리하는 데 독서만한 것 없다’에서 따온 말이지요. 그런데 궁리로 정하기 전에는 출판사 이름을 ‘사이’로 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학제간이라고도 하고 간학문이라고도 하는데 애초의 설립취지가 두 가지 분야를 오고가는 분야의 책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갑수 대표



김현숙 편집장



도진호(영입부)



김유미(관리부)



주변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대단한 편집위원을 만날 수 있느냐, 궁리닷컴 사이트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별개가 아니다. 우선 궁리닷컴은 전적으로 표정훈 씨를 비롯한 당연증, 이민아, 이한음, 장석봉, 장석훈, 황현숙 씨 등 기획위원의 작품이다. 1999년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내부에서도 홈페이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획위원들 자체가 궁리라는 그릇 하나에만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당연히 궁리닷컴은 단순한 출판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도서·출판 전문 웹사이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 민음사에 근무하던 시절 필자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출판사를 그만뒀더니까 위로차 찾아왔다가 그만 저한테 붙들린 거죠.(웃음)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계획했다기보다 밤새 술 먹고 이야기하고 텅굴며 놀았습니다. 다들 책하고 결혼한 사람들이고 지금처럼 자리잡은 때가 아니라 시간도 많았죠. 가장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출판사가 '방치' 되고 있음에도 무리 없이 굴러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모두 아이디어고 기획이다. 특히 이 대표는 스스로 궁리의 성공요인은 이러한 기획위원들의 말을 잘 따른 데 있다고 말한다. 《나는 달린다》의 경우에도 기획위원 중 한 명이 '달리기 책 하나 내보자'며 한 마디 토크진 게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책은 우리나라에 달리기 붐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쥐를 쫓다 태산을 발견한 셈이다.

궁리는 2003년 9월 9일 현재까지 82종의 책을 출간했다. 다행히 여태까지는 큰 우여곡절은 겪지 않았다. 그렇다고 베스트셀러를 낸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준 높은 책을 내며 '궁리'라는 브랜드를 독자들에게 깊이 각인시킬 수 있었다.

“과학출판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편집방향에서 특별히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기준이 있죠. 가령 문학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베스트셀러를 겨냥한 책들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너무 기웃거리는 게 아닌가 내심 걱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모색중인 궁리로선 당연한 일이다. 물론 팔릴 만한 책에 대한 모색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보다 궁리다운 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대표는 출판의 기능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사회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책에 담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궁리의 도서목록이 우리시대의 고민과 모색을 담아내는 하나의 시리즈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글**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